

2021년 2월 14일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예수님, 공회 앞에 서시다 Jesus before the Council
마가복음 Mark 14:53-65

53.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And they led Jesus t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and the scribes came together.
54.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And Peter had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And he was sitting with the guards and warming himself at the fire.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Now the high priests and the whole council were seeking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they found none.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For many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but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And some stood up and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saying: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temple that is made with hands, and in three days I will build another, not made with hands.’”
59.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Yet even about this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And the high priest stood up in the midst and asked Jesus, “Have you no answer to make? What is it tha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61.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But he remained silent and made no answer.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And Jesus said,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the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And the high priest tore his garments and said, “What further witnesses do we need?”
64.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You have heard his blasphemy. What is your decision?” And they all condemned him as deserving death.
65.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And some began to spit him, saying to him, “Prophecy!” And the guards received

him with blows.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말하자면 “예비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문회”(Hearing)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공회(Jewish Council)였습니다.

유대인의 공회는 일종의 자치기구입니다. 산헤드린(Sanhedrin)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판결할 권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청문회”로서, 죄목을 정하여 로마의 정식 판결기구에 소송을 거는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세운 계획은 “죽여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단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니다.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천국복음을 증거 하셨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님을 죽여 없애는 목표, 그 하나로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그들 그룹들 사이에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동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비재판을 통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소송을 걸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공회에서 실시한 예비재판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우해 드렸는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성경말씀의 참 뜻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성경말씀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경말씀의 가르침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와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 대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박한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모세(Moses) 때 바로(Pharaoh)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바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자기와 자기 가족은 물론 그 나라 애굽의 파멸이었습니다.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저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계획과 실행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이 되는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In his heart a man plans his course,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잠언 Proverbs 16:9

그들이 의존한 것은 로마의 법입니다. 일종의 “치안유지법”으로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하게 한 기획한 것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법”(blasphemy)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 군중들을 저들 편으로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군중들은 쉽게 부화뇌동합니다. 산헤드린은 조직적으로 예수님과 군중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거짓으로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처럼 그들은 “육신의 왕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지도자들과 대결을 벌이시는 장면에서 크게 실망한 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면을 부각시켰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결과로 유대인들의 “반란”이 예상되므로,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도 이 문제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준 유언이 창세기 49장에 있는데, 그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주”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셨습니다.

53.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And they led Jesus to the high priest. And all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and the scribes came together.

예수님을 잡은 무리들이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공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이 “다”(all) 모였습니다.

54.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쪼더라.

And Peter had followed him at a distance, right into the courtyard of the high priest. And he was sitting with the guards and warming himself at the fire.

제자들 중 베드로는 아주 멀리 도망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그리고 마치 “타인”인 것처럼 아랫사람들 틈에 앉았습니다.

베드로의 속성이 여기서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큰 소리 쳤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닥쳐온 위협은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Now the high priests and the whole council were seeking testimony against Jesus to put him to death, but they found none.

대제사장들이 주도한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본래 참을 거짓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56.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For many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but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거짓증언이라는 것을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거짓은 스스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And some stood up and bore false witness against him, saying: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짓 증언했습니다.

58.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We heard him say, ‘I will destroy this temple that is made with hands, and in three days I will build another, not made with hands.’”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인용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요한복음 John 2:19

많은 증거 중에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59.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Yet even about this their testimony did not agree.

그런데 서로 증언 내용이 달랐습니다.

요한복음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But he was speaking about the temple of his body.
요한복음 John 2:21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When therefore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that Jesus had spoken.
요한복음 John 2:22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기억하고, 그리고 믿게 된 그 말씀의 뜻을 유대인들이 어찌 기억하고 알았겠습니까?

60.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And the high priest stood up in the midst and asked Jesus, “Have you no answer to make? What is it that these men testify against you?”

이런 거짓증거가 난무하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예수님의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를 해치는 주장에 대하여 자기변명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빌라도가 보아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은 “헛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도 그들의 “상충되는 것들”만 지적해도 그 증언들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61.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But he remained silent and made no answer. Again the high priest asked him,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주님의 이 침묵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서는 성경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He was oppressed, and he was afflicted. Yet he opened not his mouth. Like a lamb that is led to the slaughter, and like a sheep that before its

shearers is silent. So he opened not his mouth.
이사야 Isaiah 53:7

침묵을 깬 것은 오리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And Jesus said, “I am, and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eated at the right hand of Power, and the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대답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니라!
Ego Eimi!
I am!

그리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낸 구약성경의 성취였습니다.

요즘 나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는 매일 하늘의 구름을 봅니다. 그 구름을 그냥 자연현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약속과 함께 봅니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And the high priest tore his garments and said, “What further witnesses do we need?”

여기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더 증인이 필요하지 않다!

그의 판단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유다의 키스를 포함한 저들의 모든 악한 계획이 그 열매를 맺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써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말입니다. 그것은 “나다!” 라는 당신의 선언으로써 종결된 사건입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 산헤드린 앞에 서신 것입니다.

64.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You have heard his blasphemy. What is your decision?” And they all condemned him as deserving death.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죄목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서 “나다!” 하신 것이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드러내신 것이?

예수님께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존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과 성령님의 증거하심으로써,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로써 예수님께서서 구세주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신성모독이란 말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뵈옵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 아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 세상에 드러내놓고 선포해야 할 거룩한 진리 아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And, leaving her water jar, the woman went back to the town and said to the people: “Come! See a man who told me everything I ever did. Could this be the Christ?”

요한복음 John 4:28-29

이 죄 많은 여인보다 못한 지식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런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이 죄악 된 세상!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서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을 때부터 이 죄목은 예상된 바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I and the Father are one.

요한복음 John 10:30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The Jews answered him, “It is not for a good work that we are going to stone you, but for blasphemy, because you, being a man, make yourself God.”

요한복음 John 10:33

다만 그 때는 무리들이 예수님 편에 섰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중심한 산헤드린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이 재판은 거짓입니다. 증인들이 거짓 증인들이며, 판결자가 공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죄가 없으시면서?

소크라테스가 생각납니다. 제자들이 그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죽으시다니요!

-이 사람들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하겠나?

예수님을 소크라테스와 수평선상에 두고 볼 일은 결코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
아닙니까? 그의 죽음은 누구도 속량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다만 죄 없으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악이 승리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주님을 알아본 것이 이 때문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When therefore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that
Jesus had spoken.

요한복음 John 2:22

65.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And some began to spit him, saying to him, “Prophecy!” And the guards received

이제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마태복음은 “선지자 노릇”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붙입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Saying, “Prophecy to us, you Christ! Who is it that struck you?”

마태복음 Matthew 26:68

마태복음은 “얼굴을 가리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얼굴을
가리고 치면서, 누가 친 것인지 알아맞히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의 속이 어떤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침묵으로써 순종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처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거짓재판을 받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이런

모욕을 견디셨는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에 치심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Yet it was the will of the Lord to crush him. He has put him to grief. When his soul makes an offering for guilt, he shall see his offspring he shall prolong his days, the will of the Lord shall prosper in his hand.

이사야 Isaiah 53:10

현재 한국은 중국에서 시작한 어떤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능신교”라고도 합니다. 양향빈과 조유산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했는데 “여자”요, 그가 양향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자들이 일어난 한 증거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들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길을 순종으로 걸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Therefore holy brothers, you who share in a heavenly call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sion.

히브리서 Hebrews 3:1

세상일에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재판을 그대로 받으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주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사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